

치솟는 설탕값에 입맛 쓴 소비자

세계 설탕 가격지수 지난달 127로 지난 10월부터 상승세 지속 인도 등 설탕 산지 생산량 감소 전망...국내 가공식품 출인상 우려

설탕 가격이 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곡물 가격이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설탕 가격은 연일 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상승한 탓에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급등, 밥상물가 상승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세계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르자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1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달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27.0으로 올해 1월(116.8)에 비해 약 9% 올랐다.

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인데, 최근 6개월간의 변동을 보면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108.6→11월 114.4→12월 117.2로 연이어 상승했다. 올해 1월 116.8로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2월 125.2→3월 127.0으로 올랐다.

올해 3월 설탕 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지수와 비교해 약 17% 높은 수치다.

최근의 설탕 가격 상승은 인도와 태국, 중국 등

대표적인 설탕 산지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수확 전망이 양호해 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또 브라질 해안가 미국 말리보다 약세를 보였고,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라 브라질산 사탕수수가 에탄올 생산이 아닌 설탕 생산에 더 많이 투입된 점도 상승 폭을 제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선 설탕 가격 상승이 국내 식품업체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설탕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국내 가공식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당장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이 영향이 국내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국내 주요 라면회사 4곳이 지난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렸고, 올해도 각 식품사는 잇달아 과자, 빵 등의 가격을 인상했다. 당장 이달만 해도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함께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세계 곡물 가격은 흑해 항로를 통한 수출과 국제적 공급량 확대로 인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세계 곡물 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173.5로 치솟았으나 지난달 138.6까지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도 세계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신안군 출신 농협인들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 기부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박태선 농협 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등 신안군 출향 농협인들이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 이훈 농협은행 공공금융부장, 전형욱 농협사료 전남지사장 외에도 전국에 있는 출향 농협인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부로 인한 답례품은 신안군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박태선 위원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내 고향 신안군의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온라인사이트 또는 전국농협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 14일 농협광주본부에서 열린 금요일시장개장식을 기념하여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복통·구토 일으킨 '쓴맛 토마토' 전량 폐기

TY올스타 재배 농가 자발적 폐기 방울토마토 속 '토마틴' 성분 원인

정부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방울토마토 품종을 전량 폐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 관계가 있는 농가 3곳을 포함해 'TY올스타'(HS 2106 품종) 재배 농가 20곳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먹은 어린이들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된 품종이 모두 TY올스타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또 이 품종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돼 방울토마토 속에 '토마틴'(Toma-

line) 성분이 많이 생성됐고, 이 성분으로 인해 쓴 맛이 나타나고 구토 등의 증상이 유발됐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해당 품종 외에 다른 방울토마토에서는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방울토마토 소비가 급감해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추방울토마토(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지난달 30일 7978원이었으나, 발표 이후 지속 하락하며 이달 12일 4160원으로 떨어졌다. 1년 전 5109원과 비교해도 18.6% 낮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쓴맛 토마토' 원인이 해소된 만큼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위해 대국민 소비 촉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5월 상순까지 농협 등을 통해 특별 할인행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도농상생 금요일시장개장 100여종 우수 농축산물 판매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14일 농협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시민들의 알뜰한 장보기를 돕기 위해 금요일시장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직거래장터 개장 행사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 고성신 본부장,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 조합장, 김시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장, 고향주부모임 운영회 회장, 농가주부모임 황금속 회장이 참여했다.

개장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진행했으며, 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100여종의 우수 농축산물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 '행운의 농축산물 톨러판' 경품 이벤트와 풍물패 공연,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을 위한 도시농부 모종나눔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자체 정비·안전관리 교육도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14일 나주 다시농협에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 봉사를 위해 NH농기계동정비단, 농기계 생산업체 전문기술사, 호남자재유통센터 등 30여명이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미리 접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경운기, 분무기, 예취기 등 영농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농기계 작동점검과 고장수리는 물론, 농업인 스스로 기본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정비 및 안전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 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농기계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기계센터가 없는 지역의 농업인들은 높은 수리비 부담과 수리시간 지연으로 농기계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은 이를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펼쳐 즉석 농기계 수리와 비용 부담을 덜고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수리는 물론 농작업 대행 등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농업인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